

당신이 후원하는 기관은, 당신의 행복 ‘Partner’ 가 되어 주고 있나요?

계좌/신용카드 자동출금 이용신청서 (신규 / 변경 / 해지)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규정(시행령 10조)에 의거, 자동이체 신청시에는 반드시 서면/공인인증서/녹취를 통한 예금주/카드주/휴대폰명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이용시 카드이용내역서상에 카드사에 따라 결제대행기관인 이지스 또는 이지스(울더케이트)의 이름으로 청구될 수 있으며, 계좌출금시에는 통장 내역에 수납기관이 지정한 통장기재내역으로 6자 이내 표시 됩니다.

① 신청정보

성명	연락처
이메일	
약정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후원기관명	<input type="checkbox"/> 가장 나눔이 필요한 곳에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0일
사업자번호(사업자인경우)	

② 결제수단

<input type="checkbox"/> 계좌이체(CMS)	<input type="checkbox"/> 카드
은행명/카드사	
예금주/카드주 본인명	
계좌/카드번호	
본인 주민번호 앞 6자리	
카드유효기간(카드선택시)	

법인공용카드, 선불카드, 해외발행카드 등 일부 카드는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연체, 잔액부족 등의 사유로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③ 세액공제신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에 주민등록번호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름 기부금 처리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그 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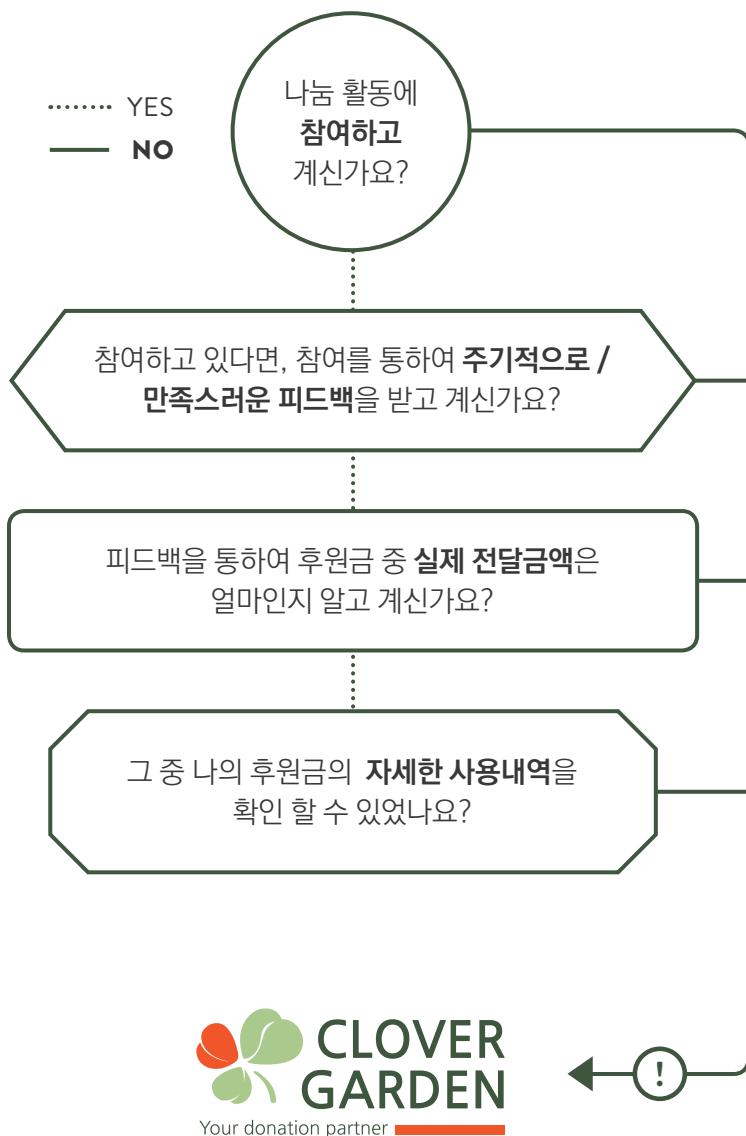
상기 자동이체 신청과 관련하여 계좌예금주/카드주로서 자동이체이체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에 동의, 문자(SMS)발송에 동의하며, 자동출금이체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뒷면참고)

동의

20 년 월 일 _____ (서명)

당신이 후원하는 기관은
당신의 ‘행복파트너’가 되어 주고 있나요?

나눔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을까요?



대형 단체들의 TV광고가 흥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3%의 대형 단체는 85%의 나눔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0여 개의 기관은 후원자들에게 다가갈 방법을 잊고 소외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내 비영리기관 숫자

10,889 개 (2012년 기준)

85%

15%

상위 3%기관 기부금 그 외 97%기관 기부금

“시장 논리에 지배 되어가는 나눔사회”
“심화 되어가는 비영리 영역의 빈익빈 부익부”

비영리기관 거대화,
좋은걸까요?

한 대형 단체의 재무 보고서 (홈페이지 기재)

수입	정기회비	724억원
	일시후원금	211억원
	정부보조금	199억원
	기타수입	88억원
지출	국내사업비	461억원
	해외사업비	358억원
	복음전파비	190억원
	캠페인 진행 및 행정비	120억원
	이월사업비	93억원

현재 많은 대형기관은 마땅한 수혜대상을 찾지 못해
수십억원을 이월/적립하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클로버가든은?



중, 소형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직접 만든 투명한 나눔 플랫폼**으로써, 후원자의 후원금을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원대상기관의 충족요소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
- 감사보고서 정부제출 단체 (회계 투명성 보장)
- 시설 운영비 조달이 아닌, 실제 수혜 대상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단체
- 상호간 추천 및 검증을 통하여 역량을 인정받은 단체
- 후원자 우선주위를 기반으로 하는 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단체

후원대상기관 목록 (현재)



클로버가든 참여방법

www.clovergarden.co.kr | 02-720-3235

클로버가든은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해 후원활동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Good-Will 커뮤니티 등 후원자를 위한 다양한 기능도 지원하고 있는 바,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돈이 아니라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방문 만으로도 어려운 우리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기업 후원자는 사전 컨설팅(무료)를 통해, 더 상황에 맞고 효과적인 후원활동을 지원해드립니다.

클로버가든 협약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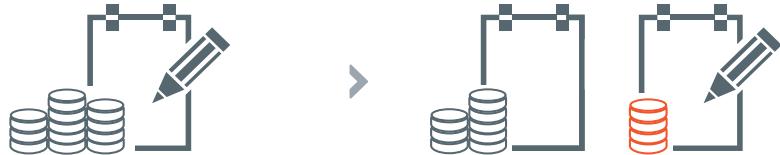
구분	단체명	1st Project
노인	행복창조	생계위험 독거노인을 위한 밑반찬 지원
장애인	안산평화의 집	사회에서 소외받은 정신지체 장애인 생활비 지원
여성	낙태반대운동연합 (Prolife)	위기임신 미혼모 상담 및 출산 지원
질병	한국소아암재단	저소득 가정 환아 치료비 지원 – 1가구 matching
아동	상록보육원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 16명 생활비 지원
환경	푸른아시아	몽골 사막화, 황사 근원지역 조림사업 지원 – 유실수 재배물 판로제공
저소득층 자녀	꿈이있는푸른학교	유기아동 보호 및 교육 지원
	흑석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자녀 석식 및 방과후 수업 지원
교육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	신당동 판자촌 내 위치한 어린이도서관 난방비 지원
	아름다운 학교	자퇴 학생 검정고시 및 건강한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

“작지만 역량 있는 단체들이 상호 경쟁하는 체제 하에,
클로버가든을 통하여 나눔 활동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후원활동 지원 서비스 (기업/개인)

“ 투명한 나눔 ”

정부지원금, 일반후원금 등 모든 예산이 둑여 구분 없이 사용 되던 기존 재정보고와 달리, 클로버가 든은 다른 후원금과 섞이지 않고 분리되어 세부단위까지 보고됩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확인 가능)



〈기존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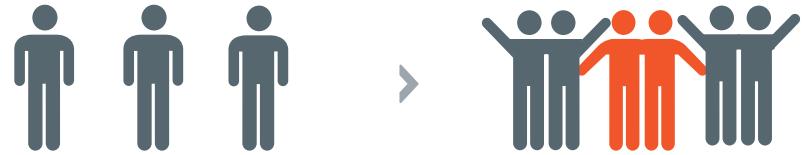
전체 후원금(정부, 기업, 개인 등)
을 통합하여 분기별 보고

〈클로버가든〉

전체 후원금 중 클로버가든 후원
금만 별도관리하여 세분화 보고

“ 펴지는 나눔 ”

개인으로 후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 혹은 동창회, 팬클럽, 동호회 등 다양한 단체의 이름
으로 함께 후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방식〉

개인의 이름으로만 후원가능

〈클로버가든〉

단체신청을 통해 단체명으로
후원가능(법인 연말정산 가능)

“ 가까운 나눔 ”

멀게만 느껴졌던 수혜대상. 이제 우리 주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곳에 후원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들과 후원기관 방문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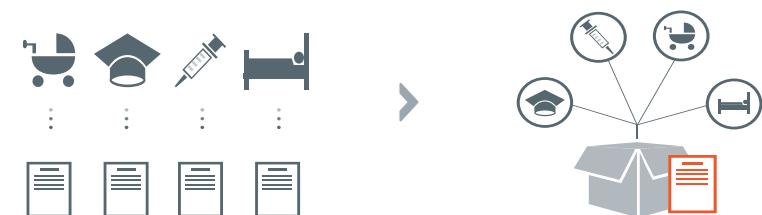


〈기존방식〉

내가 후원하는 수혜대상과의
직접적인 교류의 어려움

〈클로버가든〉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후원기관 방문 신청 가능



〈기존방식〉

일일이 기부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클로버가든〉

원스톱 통합공제를 통해
별도 신청없이 관리 및 확인 가능

클로버가든에서는 온라인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 사용내역 실시간 확인”

CLOVER GARDEN
Your donation partner

- 후원자마당
- 클로버가든
- 함께하는 사람들
- 이용안내
- 고객센터

Home > 후원자마당 > 후원자마당

후원자 현황

누적 기부 금액	누적 후원기관 수	누적 이용자 수
6,128,988,000원	88개	12,222명

홍길동 님은?

누적 기부 금액	누적 후원기관 수	후원현황 전체보기
88,000원	8개	

나의 활동정보
소속단체명: 홍길동
총길동 11,000pt
내가 쓴 글 13
내가 단 댓글 16
봉사활동 참여 수 3
쪽지 5
Mail Box 3

“단체 및 개인 커뮤니티, SNS 공유 가능”

CLOVER GARDEN
Your donation partner

- 후원자마당
- 클로버가든
- 함께하는 사람들
- 이용안내
- 고객센터

Home > 후원자마당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전체 그룹

작성자	제목	날짜
삼성중공업 홍길동님	사무국에서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9/6~9/10.	2014.09.15
현대해상 선우재덕님	5일간 추석 휴무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2014.09.15
현대해상 홍길동님	사무국에서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9/6~9/10.	2014.09.15
현대해상 홍길동님	5일간 추석 휴무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2014.09.15
현대해상 홍길동님	사무국에서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9/6~9/10.	2014.09.15

“후원기관 봉사활동 신청”

CLOVER GARDEN
Your donation partner

- 후원자마당
- 클로버가든
- 함께하는 사람들
- 이용안내
- 고객센터

Home > 후원자마당 > 봉사 스케줄

봉사 스케줄

◀ 2014년 09월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나의 활동정보
소속단체명: 홍길동
총길동 11,000pt
내가 쓴 글 13
내가 단 댓글 16
봉사활동 참여 수 3
쪽지 5
Mail Box 3

나의 활동정보
소속단체명: 홍길동
총길동 11,000pt
내가 쓴 글 13
내가 단 댓글 16
봉사활동 참여 수 3
쪽지 5
Mail Box 3

제 목 00양분일 토요일 정기 봉사활동 **no image** **신청하기**

활동 내용 이번주 토요일 오전 10:00~16:00 양로원 후문쪽에 모인 후 가다듬어 브리핑 후 입장을 하겠습니다.

“손쉬운 후원대상 탐색”

CLOVER GARDEN
Your donation partner

- 후원자마당
- 클로버가든
- 함께하는 사람들
- 이용안내
- 고객센터

Home > 클로버가든 > 목록

목록

◀ 목록 ▶

후원기관

작성자	제목	날짜
소속단체명: 홍길동 총길동 11,000pt 내가 쓴 글 13 내가 단 댓글 16 봉사활동 참여 수 3 쪽지 5 Mail Box 3	나의 활동정보	2014.09.15
현대해상 선우재덕님	5일간 추석 휴무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2014.09.15
현대해상 홍길동님	사무국에서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9/6~9/10.	2014.09.15
현대해상 홍길동님	5일간 추석 휴무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2014.09.15
현대해상 홍길동님	사무국에서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9/6~9/10.	2014.09.15

아동 청소년 자활 센터

여성 청소년 자활 센터

장애인 청소년 자활 센터

후원활동 지원 서비스 (기업)

클로버가든을 통한
CSR(기업 사회공헌)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대비용없이 한 차원 높은 CSR”

- 내부 임직원의 호응 수준에 따라 금액 및 대상을 자유롭게 조정
- 모든 과정을 온라인 상에서 간편하게 진행

“내부 인적자원 소모 없는 CSR”

- 각 단체가 맞춤형 참여활동 개발 및 항시 제공
- 임직원(개인) / 기업 각기 다른 수요에 맞추어 관련 제반업무 처리 대행

“적은 금액으로 높은 PR효과”

- 각 단체 별로 발행하는 홍보자료에도 모두 기업후원 내용 게재
- 임직원 각각의 개인적 관계망과 SNS로 손쉽게 공유

“지속 여부 결정분석 지원”

- 월별/ 분기별 사용내역 및 진행현황 보고
- PR 발생현황 등 연간 분석 보고

임직원이 공감하고, 하고 싶은 CSR은
기업 내부문화의 체질을 개선하는 시작입니다.

클로버가든을 통한 CSR(사회공헌) 활동 프로세스

후원문의 및 협약 → 기업의 후원금 설정 → 임직원 참여 → 기부금 전달 및 사후관리

후원문의 및 협약	기업이 원하는 후원방식에 맞추어 후원설계 및 협약체결
기업의 후원금 설정	매달 기업의 후원금을 포인트 형식으로 임직원에게 배분
임직원 참여	홈페이지를 통해 기호에 맞는 후원대상 선택 및 후원시작
기부금 전달 및 사후관리	후원금 전달 / 후원금 사용내역 및 피드백 보고 (월 단위)

클로버가든 협약기관

행복창조

상록보육원

(사)낙태반대운동연합

안산평화의집

한국소아암재단

흑석지역아동센터

꿈이있는푸른학교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푸른아시아

아름다운학교

행복창조

생계위험 독거노인을 위한 밑반찬 지원

심각한 복지정책 그늘 속 독거노인

극빈층이지만 부양할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기초적인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은 약 1백만 명. 이 가운데 70%는 가족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연고 노인 시신 숫자는 지속 증가하여 현재 매년 1,000구 가량 신고되고 있습니다. 무관심은 어쩌면 우리 부모님에 대한 현대 고려장이 아닐까요?



12:00. 강순례(가명) 할머니는 매일 점심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무료로 점심 이용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찬밥에 물을 말아 김치뿐인 밥으로 끼니를 때웠지만, 지금은 간소한 3찬이라도 영양이 골고루 담긴 식단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 할머니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 한 번, 따뜻한 밥 한끼.

오늘도 지하 단칸방에서 쓸쓸하게 겨울을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경로식당은 하루 한 번, 따뜻한 밥 한끼를 드실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마저도 보조금이 부족하여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행복창조를 후원해주시면 더 많은 독거 어르신들이 경로식당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창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웃에게 꿈과 사랑의 빛이 되고 지역사회와 인류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사회적, 신체적으로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개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연계하여 보다 행복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록보육원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 16명 생활비 지원

베이비박스에 놓여진 16명의 아이들

베이비박스 (Baby Box)란?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상자를 베이비박스라고 부릅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두운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기들, 그 중 16명의 아이들은 이 곳 상록보육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 한 명에게 한 달에 드는 비용은 평균 60만원, 하지만 정부지원금은 한 명당 9만원.

상록보육원은 3명의 보육교사가 생후 36개월 이하의 16명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직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손입니다. 아이들은 시설에 오게 되는 과정에서 입양시기를 놓치게 되면서, 입양 가능성이 매우 낮아져 사실상 상록보육원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지내야 합니다. 매일 바뀌는 보육교사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이 아이들이 다시 세상에 버려지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세요.



상록보육원은 1959년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아동복지법에 의해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으며, 만 0세부터 만 18세 까지 아동 84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낙태반대운동연합

위기임신 미혼모 상담 및 출산 지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힘겨운 미혼모의 출산

미혼모 / 22세 / 학생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임신하였지만 남자는 이 사실을 알고 외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꼭 출산하여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 여성에게 우리는 미혼모의 길은 힘드니 아이를 포기하라고 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여성이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여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까요?



태아를 살려주세요. 낙태하지 말아주세요.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생명을 잃는 태아의 수,
하루 460~920명**

낙태반대운동연합에서는 위기임신 및 미혼모를 위한 임신상담과 출산, 입양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일반시민임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 가족을 위하여 임신, 출산, 양육의 3 단계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복한 엄마와 아기를 위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생명의 소중함이 사라져 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생명 사랑을 나누기 위해 1994년 4월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태아복지와 여성복지, 나아가 일반시민 개개인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산평화의집

사회에서 소외받은 정신지체 장애인 생활비 지원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받아 의지할 곳이 없는 은숙(가명)씨.



시설 내 만언니 은숙씨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애로 숨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은숙씨는 평생을 누워 지내고 있습니다. 안산평화의집은 이처럼 아무도 돌봐 주지 않는 지체장애인들이 함께 평생을 가족처럼 지내는 곳입니다.



안산평화의집에서 만큼은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평화의집에 입소하는 장애인들은 모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가족과 사회에서 외면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일반인과는 조금 다르게 행동할 수 밖에 없는 정신지체 장애인은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이 버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평생을 여기에서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산평화의집은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는 곳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더불어서 장애를 죄로 여기지 않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안산평화의집은 1983년 설립되어 소외 당하고 본인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주거공간,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정서와 건강한 몸으로 보다 독립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며, 장애인 가족의 복지향상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계몽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소아암재단

저소득 가정 환아 치료비 지원 - 1가구 matching

혈구탐식증증후군을 앓고있는 9살 준석이(가명)



Sponsored by Lixil Korea

준석이는 혈구탐식증이라는 병을 진단 받고 항암, 골수이식까지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외에도 많은 후유증은 준석이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골수이식 후 많은 약물과 투약으로 인해 신장 두 개 중 하나는 기능을 못할 가능성이 많고, 지금도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중이염 수술을 앞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지금, 9살 준석이가 모든 치료를 잘 견뎌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 준석이는 현재 부모님이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차상위 가정으로 2014년부터 클로버가든을 통해 정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우리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을까요?

소아암으로 인해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아이들은 합병증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환자전용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수술, 치료 등 큰 비용을 감당하다 보면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먼 병원까지 지하철과 버스를 타야만 합니다.



소아암에는 백혈병 뇌종양 악성림프종 신경모세포종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혈액암인 백혈병은 가장 많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아암재단은 백혈병을 비롯하여 거칠고 힘겨운 암이라는 병마와 싸우는 어린이를 지원하여 국가사회의 건강한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후원사업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흑석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자녀 석식 및 방과 후 수업 지원

열악한 유해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지역 아동들의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기초학습 지원

전 과목 인터넷 강의, 한문, 영어, 수학 등 개인 및 학년별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통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야간보호 사업

야간운영 및 전문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야간시간에 방임된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 합니다.

토요일 문화·체육 사업

저소득, 차상위가정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매주 토요일 문화체험(연극, 영화, 미술관, 캠프 등) 및 생활체육(탁구, 스케이트, 볼링, 수영 등) 실시합니다.

무료급식 사업

무료급식(학기 중 1식, 방학 중 2식)지원, 아이들의 생필품 및 밀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에 설립된 흑석지역아동센터는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부모역할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삶의 질 향성과 특기, 적성을 개발함으로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함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꿈이있는푸른학교

유기아동 보호 및 교육 지원

전체 형제 비율 40%, 가족과 같은 아동센터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밤 먹을 시간 6시.

이 시간은 꿈이있는 푸른학교의 저녁 식사 시간이기도 합니다. 형제, 남매의 비율이 전체 40%나 되는 꿈이있는 푸른학교는 가족처럼 더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해체, 폭력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던 아이들은 이제 건강하게 자라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정민이(가명)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알콜중독을 앓고 있는 아버지로 인해 유난히 힘든 유년시절을 보냈던 정민이. 처음 센터에 왔을 때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센터에서 생활하면서 정민이는 센터의 꾸마달 음악밴드를 통해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생이 되어 예비 사회복지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꿈이있는 푸른학교는 경제적 어려움(실직, 저소득), 가정의 해체(한부모, 조손가정), 폭력, 방임 등 위기에 처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키워내기 위해 2000년 시작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은평구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자원과 지원을 연계하여 아동들을 위한 맞춤형, 통합 교육을 제공하여 아이들을 키워갑니다.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신당동 판자촌 내 위치한 어린이도서관 난방비 지원

1980년대, 판자촌 아이들에게 안식처였던 작은 공부방

비 새는 판자촌들 사이에서 지혜(가명)가 놀 수 있는 공간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늦은 시각까지 일터에 계시기 때문에 밥을 챙겨주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작은 공부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계발로 인해 이전을 계속해오다 1999년 주민들의 힘이 모여 느티나무어린이 도서관이 설립되었습니다.



동네 공부방으로 시작한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은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난독증 어린이를 위한 1:1 독서치료 강사 지원

난방비와 냉방비 지원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은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보다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글을 읽지 못하는 난독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에서는 이러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독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은 정부 지원금이 사실상 0%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이곳에서 책을 읽고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을 위해 난방비와 냉방비를 지원해 주세요.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은 처음 1992년 신당동 판자촌에서 방과후 공부방으로 운영되다 아파트 개발로 인해 1997년 문을 닫고, 1999년 주민들의 후원으로 재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동네 주민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책과 놀이 문화를 통해 아이들이 이웃과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학교

자퇴학생 검정고시 및 건강한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

탈학교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란 극히 제한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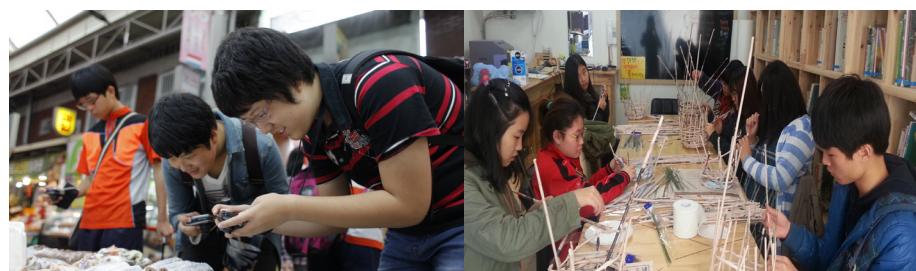
누구나 청소년기에는 충분히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적 학습과 대안적 진로개발을 통해 무한 경쟁과 상호 단절된 사회문화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시형 대안학교입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학교 (검정고시 준비, 인문학 강좌, 창업지원 프로젝트 등)



정서의 건강한 치유를 도와주는 학교 (나를 표현하기 사진수업, 아침을 여는 모임 등)



사단법인 청소년교육공동체 '함께시작'의 아름다운 학교는 광진구 및 인근 지역의 탈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안적 학습과 삶의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성원으로 성장하여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돋고자 설립되었습니다.

푸른아시아

몽골 사막화, 황사 근원지역 조림사업 지원 – 유실수 재배물 판로제공

양흐벌드 아저씨와 여섯 식구의 희망을 앗아간 자연재해



2009년 겨울, 몽골 사막화 지역에 사는 양흐벌드 아저씨와 6식구에게 몰아닥친 갑작스런 한파는 약 40여 마리만을 남기고 모든 희망을 가져버렸습니다. 그 이후 생계를 위해 도시 빈민가에 살면서 여러 가지 벼랑 끝 일을 하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푸른아시아와 함께 나무를 심으며 숲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막화 방지를 위한 모래와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 나무뿐 아니라, 소득원이 되는 과실수 '차차르간'과 '우흐린누드'도 심으면서 이를 통한 소득으로 다시 희망을 되찾고 있습니다.



지금 몽골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토의 91%에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1,166개의 호수와 연못, 887개의 강, 2,096개의 시내가 사라졌고 식물 종의 3/4이 멸종되었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강과 호수를 돌아오게 합니다. 푸른아시아와 함께 해주세요.



푸른아시아는 기후변화에서 안전한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15년간 기후변화, 사막화, 황사 등 국제 환경문제에 대응하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사막화 피해지역인 몽골지역에서 조림사업, 경제발전, 사회통합을 아우르는 생태자립마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